

적었다.

6) 내륙에서는 6월 10일 이양까지는 내경이 유리하나 그 이후는 밀양 21호가 수량이 높으며 연해지역에서는 5월 26일까지는 내경, 6월 10일경에는 밀양 21호, 6월 25일은 밀양 15호, 7월 10일 극만식은 조생통일이 유리하였다.

7) 이양기에 따른 수량의 변이계수는 연해지역이 내륙보다 커서 만식에 의한 수량 감소정도가 높은 편이다.

10. 춘천지방에 있어서 통일계 벼의 안전작기 구명에 관한 연구 (강원도 농촌진흥원) 오용비

“통일”계 벼의 재배에 있어서 춘천지방의 기상환경과 출수일수 및 수량과의 관계를 밝혀 안전 다수할 수 있는 작기를 구명하고자 시험한 결과

1) 이양기가 지연됨에 따라 출수기도 지연되었는데 조만간의 출수 지연폭은 만생종이 더 컸다.

2) 출수 일수간의 1일 평균기온과 출수일수와는 유의적인 부의 상관관계로서, 1°C 높아짐에 따라 양품종 공히 5일씩 단축되었으며 퇴귀 직선식을 구하므로써 임의의 이양기에 있어서 출수기 예측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3) 등숙기간 1일 평균기온과 등숙율 및 수량과의 관계는

"조생통일"은 24℃에서 "수원 264호"는 23℃에서 정점을 보였고 22℃ 이상되어야 10a 당 500kg 이상의 수량을 얻을 수 있었다.

4) 품종별 등숙적온과 출수일수와의 교차점을 찾아 안전 다수할 수 있는 작기 추정의 새로운 하나의 방법을 제시할 수 있었다.

11. 수도 초형의 유전에 관한 연구

(작물시험장) 곽태순, 김중호, 정근식, 최현욱

1966년 이전에는 도복과 수량과의 관계를 검토하려는 것이 막연한 개념으로 되어 있으나 IRRI에서 IR8을 육성하므로써 도복지수와 수량성을 양립시키기 시작했다. 품종면에서 전전한 생육을 유지하면서 광합성 능력이 높은 초형이 요구된다. 이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직립이고 단간의 초형이 요구된다.

허등, Aquino 등, Chang, Jodon들은 단간이 단순 열성 유전인자에 의해서 지배된다고 보고한바 있다. Chang은 각 단간종이 각기 1개의 단순열성인자에 의해서 지배되지만 이들 열성인자들은 상가적인 효과를 갖는다고 언급하였다. 수도 초기생육에서 Stunting 현상의 유전양식이 불분명하여 이 유전양식을 규명하여 다수성 품종을 육성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이용코자 수행하였던바 초장 및 간장에서 동일한 방향으로 초월우성을 보인 이리 330×수원 232호 조합은 다같이 장초장, 장간쪽으로 움직였고 초장에서는 단초장이